

사설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한길따라 끝없이 강성번영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며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제 37(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즐기게 되고나갈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우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값높은 삶과 영예, 부강조국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은 공화국의 창건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년대와 세기를 이어 불패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온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크나큰 영광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시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한길따라 강대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주체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며 영원한 진군로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60여사상은 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어온 전후적과정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론을 제시하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해방된 조국명우에 창건된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독립국가건설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역사에는 선행리론이나 기존판례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시고 대국들의 압박과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시며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과 배짱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신념은 창조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게 한 필승의 보검이였으며 빈터우에서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한 근원천천이었다. 사대 외교로 얼룩진 파란많은 수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나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은 조국적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전진시키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신조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한길에 따라 역세계 전진하는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이시였다.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장엄한 진군이 다그쳐지는 속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였으며 우리 조국이 주체의 향로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원동력이였다. 총대를 앞세우고 총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위위와 영향력이 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강성국가건설의 활로가 열려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우리 식의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다져지게 되었으며 민족만대의 운명수호와 강성번영을 담보하는 백두산대국의 역설기들이 마려울 수 없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 따라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백전백승을 수놓아온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그 존엄과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의 조국을 천하 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는 길 한길은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큰바른 지평을 따라 강성강국의 행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세계에는 자주적신념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거나 남을 쳐다보다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경제적과국에 처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자주 의 제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극도로 달라고있지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자주적대는 정의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세력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자주성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여주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무적필승의 군력을 다져놓으시였다. 강위력 결단성있는 사병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 리익을 지키는 길에서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우리 당만이 단행할수 있는 배격이다. 남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의 돌파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어나가고 21세기 문명강국을 건설하여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천만년 길이 전해가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4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8월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4월



만수대의사당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3(1984)년 10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의 날에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11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6(1987)년 11월



인민대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8월



서해감문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디마스끄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대 통 령
바 샤 르 알 아 사 드 각 하

나는 생일 49돐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올바른 평도밀에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건강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주제103(2014)년 9월 8일

평 양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의 김정은동지는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은 김정은평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특전병부대들의 강화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을 지도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평도자께서는 항공 특전병들의 용감한 훈련모습에 대한 소식을 포시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다방면으로 강화된 일당백싸움군대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

시었다. 로씨야의 신문들인 《로씨스 카야 가제타》, 《모스콥스키 프소블레즈》, 인터넷신문 《브즈글라드. 루》, 인터넷 통신들인 블리프. 루, 디. 루, 브란스크. 루,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보도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송, 만마신문 《뉴 라이트 오브 만 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방을 현지지도하신 데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선연구소 연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동 지
김 영 남 동 지
박 봉 주 동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 민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총 리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지난 66년간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평도밀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앞으로 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고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주시는것으로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는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번영과 발전, 평화와 안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전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중 국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총 서 기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주 석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중 앙 군 사 위 원 회 주 석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원 총 리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전 국 인 민 대 표 대 회 상 무 위 원 회 위 원 장
평 양
2014년 9월 8일

배 이 정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평도밀에 백두의 역세기상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국땅에 새로운 조선속도장조의 불길드높이 비약과 혁신의 대화폭이 펼쳐지고있는 격조적인 시기에 대를 이어 수형부, 장군복을 누리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인 커다란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위국은 인류역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인민이나,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선군으로 승리하며 위용떨치는 불패의 백두산강국입니다.
세계가 한결같이 우리르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을 뿌리는 조국이 있어 우리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찬바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참된 삶을 누리며 세계해방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 수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마광노의 천대와 멸시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시고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워주시었으며 평양의 위기에 놓인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이끄시며 공화국의 진정한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결성하여주시고 애국충정의 모범, 애족애국의 선각자로 빛내여주시었습니다.

공화국 국적법으로 재일동포들을 보호해주시고 총련의 각계층 대표들을 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나아가 학생들을 환전에 안아 보살피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전철같은 사랑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인 재일동포들만이 받아안을 수 있었던 만복임을 우리들은 새기고 새대를 이어 절감하고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평도의 길에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주체적해방교포운동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는 강명적인 가르치심을 거듭 주시었으며 강성국가의 대문에 들어서서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쓰거울 믿음을 주시고 길을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총련일군들을 한전호속의 동지로, 재일동포들을 한식술로 뜨겁게 불러주시며 총련조직과 동포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어 자연해해 당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까지 배려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총은 우리 재일동포들이 영원무궁토록 간직하고 살아야 할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공화국창건전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부풀어오르고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과 반미대결전도, 총련의 애족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으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조국수호의 최전방초소를 찾고 또 찾으며 백두산혁명장군의 위력을 천배로 다지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며 위업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르느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총정과 흠모의 정으로 먹차오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선군평도와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 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일어나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서 우리들은 조국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을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으로 여기시고 총련을 극진히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 총련사업에 위대한 평도의 자애를 새기시며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역사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시어 주체혁명위업게승의 역사적전환기에 제일조선인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습니다.

정녕 우리 조국을 백두의 혁명정기인 약동하고 승리와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불패의 강국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조국과 총련의 위대한 평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헌원이 은혜로운 스승입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심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 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끝까지 전진시켜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방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 대로 한치의 드림도 없이 밀고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제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원수님의 유일적평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사랑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총련조직을 전통이 굳건하고 군중적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갑니다.

우리들은 각급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며 새 전성기 애족애국보방장조운동과 동포되찾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으로 광범한 동포들을 애족애국의 한길로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교육사업을 애족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과목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동포들의 지향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강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로 새 세대가 전령이 굳건하고 계승이 위대한 총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도록 하며 동포상공인들이 제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은애국주의로 가슴 불태워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어머니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에 특출하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벌이며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국제적위신을 높이고 총련의 합법적지위와 민주주의적민권전리를 옹호확대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음해에 맞이할 총련결성 60돐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세계해방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는 일대 정치적기적으로 빛내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로를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여어 열어나가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백두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우리모두의 최상최대의 행복이며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평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3(2014)년 9월 9일 일본 도쿄

수도의 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첫물사과를 받아안았다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수도의 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후대교육사업, 인재육성사업에 헌신하는 교육일군들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에서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아 평양시내 주요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사과를 남다른 애정으로 나누어 주었다.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하는 아가울이 없었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따들인 잘 익은 사과들을 자동차들에 가득 실어 평양으로 떠나보내었다.

8일 새벽 뜻밖에 과일수송대를 맞이하게 된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어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수도의 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열매의 따사로운 빛으로 주체교육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혁명적재력으로 키우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8일 민주대의사당

에서 의례방문하여온 가네마루 야노부 야마나시TV주식회사 사장 등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대표단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정숙 조선대외문화원 박희희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되새겨보는 참관자들
—평원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창공에 탐험해공화국을 펼칠 휘날리며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게 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란한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평도자를 중심으로 통일단결되어 있고무상치로, 무료교육을 비롯한 사회주의적책들이 실시되고있다. 특히 권력강화에 선차적임을 넣고있는 조선은 온 사회에 군사정권기풍이 차넘치고있으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주호가 사회생활의

국 제 사 회 계 가 격 찬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부위원장 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리며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나라의 주권은 모두 인민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자기자신이 미래를 설계하고 참다운 자유를

음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기네신문 《로로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용은 오늘 김정은평도자에 의하여 더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정은각각께서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면서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그이의 평도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세기를 이어 영원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

사회주의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히 빛나는 자욱

내 나라, 내 조국의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이 휘날린다. 바라볼수록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시고 우리 조국이 부강번영할 만년 담보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평도업적이 사회주의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히 빛날차와 사람들은 함평공화국기발을 뜨거운 가슴마다에 소중히 안는다.

건국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영생축원의 넘칠이 예닐곱십년대의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은 온 나라 친만국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우리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태어난 노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린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사 산천도 노래하라 이념의 강령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이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해방된 조국땅, 민족의 터전우에 인민의 새 나라, 우리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역사적사건이 노래에 실려 이르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평도와 크나큰 로고, 헌신의 고귀한 절실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조국을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수명을 풀어준 역사적사건이었고

민족의 대경사였다. 일찌기 10대의 시절 열렬한 애국의 뜻을 안으시고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었다. 항일전의 포연에 그늘린 군복을 벗을새없이 불철주야의 헌신과 평도로 배향된 조선인민의 드높은 건국열의와 모든 애국력량을 조직발동하시어 원수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이 땅우에 당과 군대를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히 빛나는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을 말할수록 그날의 화북이 승엄히 되새겨진다. 마침내 건국의 역사적업무를 실현하신 그날 어떤 가슴뜨거운 광경이 우리 수령님 댁에서 펼쳐졌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나라의 해방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열렬한 애국충정을 다 바치신 백두산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그동안 이루셨던 해주시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붓짓소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 크나큰 의리를 담아 술을 부으시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울리시며 왜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고 그러시니,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생애 쌓고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것이 없습디라고 삼가 말씀드리시었다. 백두산대장군의 그날의 말씀에 우리 인민의 열렬한 심정이 그대로 어렸어 오늘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얼마나 바라고 념원하던 우리 공화

국인가. 간악한 섬오랑캐무리들에게 국토와 국권을 강탈당한 땅국의 한에 가슴허비며 시달림당당국의 피눈물로 이 땅을 적신 사람들, 진정한 조국이 없고 국기조차 없이 국제체육무대에 나서도 저주로운 일장기를 달아야 했고 선수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사진을 냈다는 죄악년 《죄》로 류치장생을 저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어제의 우리 인민이었다. 빼앗긴 나라와 국권을 되찾고저 단국혁명의장에 선혈을 뿌리며 그토록 피라게 부르고불러도 대답없던 어제의 조선이었다.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마침내 자주독립국가로 탄생하여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된것이다. 그날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기쁨과 감격에 울고웃으며 러친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오늘날 이 땅우에 메아리었다. 경축의 광장에 너도나도 떨쳐나 30대의 건국수반이신 우리 수령님께 다함없는 영광을 삼가 드리던 그날의 화북이 어찌와 우리 가슴 벅차오른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그 나날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평도로 침략자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벌하시고 공화국을 수호하시는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폐허로 된 이 땅우에 일떠선 자주로 존엄하고 자립으로 용하며 자위로 강대한 주체의 사회주의의 강국,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는 이 세상 가장 우월한 인민민주주의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시이다. 사회주의조선의 꽃다발우에 력력히 빛나는 주체의 나라!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나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의 강국! 선군의 위력으로써 승리를 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의 강국!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신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승리와 번영의 한길을 걸은 영광스

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수령부, 장군부은 영현하다.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위대한 당의 평도따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을 떨쳐갈 신심과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 언덕에서- 본사기자 립 학 락 적음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나라!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나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의 강국! 선군의 위력으로써 승리를 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의 강국!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신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승리와 번영의 한길을 걸은 영광스

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수령부, 장군부은 영현하다.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수령부, 장군부은 영현하다.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수령부, 장군부은 영현하다.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수령부, 장군부은 영현하다.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나라이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수령부, 장군부은 영현하다.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길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민족사에 빛나는 새 페이지
주제 37(1948)년 9월 12일에 있는 일이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선군정치의 위력
주제 89(2000)년 1월 1일 일들과 지리물 같이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된 나라가 창건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뛰며는 군중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
주제 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병식연단에 거연히 서시어 시대와 력사, 인류앞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
주제 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병식연단에 거연히 서시어 시대와 력사, 인류앞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연설하시면서 정부수립의 의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이지를 열여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



